

## 외국 대학의 敎養敎育

金 光 億

(서울대 人類學科)

## 1. 머리말

먼저 이 글을 씀에 있어서 필자에게 주어진 제목이 두 가지 점에서 당혹감을 불러일으켰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로 필자는 대학에서의 교양교육에 관한 이론적 전문가가 아니며 특별히 조사나 연구를 한 적이 없다는 점이다. 둘째로는 그나마 외국의 대학을 말한다라는 것이 주는 일종의 예상되는 불만감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곧잘 우리의 현실을 외국의 것과 평면적인 비교를 하는 버릇이 있는데 이 글도 크게는 그러한 범주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의 대학교육 전반적인 현실이 우리가 흔히 거론하는 세계적 명성이 높은 몇몇 외국 대학의 모습을 수용하기에는 너무나 현격한 차이를 가지고 있어서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모두 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발전하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키지 않는 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최근 들어 교양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 계발방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서울대학교와 강원대학교를 위시로 각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교양교육을 발전시키는 실험적인 작업을 시도하고 있으며 전문적 지식 전수에만 치중된 대학교육의 전반적인 성격에 대한 자성적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sup>1)</sup>

따라서 이 글은 제도나 운영의 측면보다는 경험적 사실의 전달에 치중함으로써 전문가들이 보다 효과적인 교양교육 개선방안을 수립하는 데 참고자료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 특히 하바드대학에 관한 부분은 유학 경험이 있는 분들의 진출과 기타 보고서 및 자료를 이용하였고, 옥스포드대학에 관해서는 필자의 유학생생활에서 얻은 경험에 바탕을 두었음을 밝힌다.

## 2. 敎養敎育의 의미

대학의 의미와 기능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교육받은 일반 교양인'으로서의 구비해야 할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는 소위 교양교육의 場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물론 현대 사회의 전문화·다양화·세분화 추세는 개인으로 하여금 고도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대학은 이러한 시

1) 서울대학교, 대학 기초과정 교양교육 개선을 위한 교과목 개발 연구보고서, 1981.  
 서울대학교, 대학 교양과정 개편 연구, 1982.  
 서울대학교, 대학원중심 대학의 교양교육개선방안 연구, 1983.  
 강원대학교, 교양교육과 창조적 지성인, 1984.

대적 요청에 의하여 제 기능 가운데 그 강조점이 변하게 된다. 즉 교양교육보다는 전문지식의 전수와 탐구가 주된 역할로서 요구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일수록 교양교육은 역설적으로 더욱 필요하다. 전인교육이란 흔히 말하는 바의 신사 양성의 뜻이 아니라 현대 사회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그 속에서 인간성을 충실히 실천할 수 있는 능력과 자세를 기르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것은 감성의 계발뿐만 아니라 필요한 제 지식을 상호 연관하여 습득함으로써 인접 분야와의 맥락 속에서 전공교육의 기초를 확립함과 동시에 총체적 안목과 지식의 형성으로 발전·확대시켜 나가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교양교육은 오늘날 우리의 대학에서 전문적 지식은 가르쳐도 그 지식의 활용에 대해 스스로 윤리성을 판단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사용하는 훈련은 지극히 소홀히 하고 있다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더욱 절실히 요청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교양교육을 소위 교양과목으로 분류하여 학생들에게 이수토록 규정한 강의의를 통하여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교양과목이란 비전공 영역에서 주로 '개론'이나 '입문'이란 이름이 붙은 평이한 수준과 개괄적인 내용의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나,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 및 국어와 같이 보다 높은 수준의 대학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도구적 성격의 교과목, 그리고 국민적 자질을 함양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권장하는 국사와 국민윤리와 같은 정책과목 등으로 나누어서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전공과 비전공, 고급 기초, 도구적 교과목과 정책적 교과목 등의 구분은 실제의 '교양교육'과는 관계가 없으며 또한 이러한 분류에 의한 교양교육의 실시는 진정한 의미에서 교양교육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우리는 외국의, 특히 영미 대학의 교양교육의 현황과 그 철학적 배경 및 추세를 간단히

살피봄으로써 우리나라 대학에서의 교양교육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 3. 美國 대학에서의 교양교육 —하바드대학을 중심으로—

미국 대학에서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대학에서의 교양교육을 논할 때는 흔히 하바드대학과 컬럼비아대학의 교양교육 개혁안 혹은 보고서가 인용된다. 이 개혁안은 일본과 우리나라에서도 참고로 하여 각각 실정에 맞는 새로운 교양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지침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즉 1945년의 「자유사회에 있어서의 교양교육」<sup>2)</sup>이란 제목의 하바드대학 교양교육연구회의 보고서와 1966년에 나온 「교양교육 개혁안」<sup>3)</sup>이란 주제의 컬럼비아대학의 보고서 등은 대학에서의 교양교육이 지향해야 하는 목적과 그 운영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후 교양교육의 지침서가 되어 있다.<sup>4)</sup>

하바드보고서는 교양교육을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의 세 영역을 특징짓는 지식 습득의 방법과 사고방식의 계발과 관련하여 개발해야 한다고 규정짓는다. 즉 자연과학은 '記述·分析·說明'을 하는 학문이며, 인문학은 '評價·判斷·批判'을 하는 학문이고, 사회과학은 이 두 가지를 합하여 '說明과 評價'를 하는 학문이다. 그리고 자연과학은 '논리적 사고'를 계발할 것을 필요로 하고, 인문학은 '想像의 사고', 그리고 사회과학은 '관계적 사고'의 계발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이 세 학문 영역의 교육을 적절히 반음으로써 현실에 대처하는 건전한 생산적인 사고방식을 함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바드위원회는 이를 위하여 교양교육이 인간 정신의 質로서 적성(aptitudes)과 태도(attitudes)를 계발함을 목적으로 하여 '효과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 '사상을 명확히 표현하고 교환하는 능력', '합당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

2) Harvard Committee, *General Education in a Free Society*, Harvard University Press, 1945.

3) Daniel Bell, *The Reforming of General Education*, Columbia University Press, 1966.

4) 이에 대한 자세한 소개와 한국 대학에서의 응용방안에 대해서는 강원대학교 교양교육개혁소위원회 보고서, 교양교육과 창조적 지성인, 1984를 참조할 것.

그리고 '여러 가치들 중에서 이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의 구체화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교양교육의 철학적 배경은 콜럼비아보고서에서 더욱 강조되는데 여기에서는 교양교육을 '학문간의 구획을 가로질러서 서구문명의 역사와 전통과 위대한 사상을 취급하며 여러 학문들이 공통으로 관련되는 통합적 문제 또는 공통의 주제를 다루는 과정'으로 규정하고 교양교육의 내용이 여러 학문에 있어서의 지식의 성격, 그 성립의 근원적 배경 및 응용도를 밝히는 것과 여러 학문의 궁극적인 주제를 종합적인 안목에서 이해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이를 기초로 하여 미국의 각 대학에서는 문학·과학·사회·문화에 관한 학문들이 각각 적절한 주제로 세분되기도 하고 학제적 협력체제(interdisciplinary cooperation)를 통하여 연합되기도 하면서 다양한 교양과목이 편성되었다.

1960년과 '70년대 교양과목은 물론 학교마다 다양하지만 대체로 현대의 미국 및 세계문학, 라틴아메리카·아프리카 및 아시아 문화사, 미국 역사, 미국의 사회와 문화(특히 민족집단들간의 통합과 갈등)에 관한 문화인류학적 접근, 과학기술의 발달과 인간소외에 관한 문제, 진보와 퇴보의 문제에 과학과 철학을 결부시킨 강좌와 같이 현대 및 미래 사회에서 미국의 입장을 인식한 바탕 위에서 현실적 감각을 개발하는 주제를 다루는 과목이 특히 많이 개설되었음을 주목할 만하다. 이는 또한 미국의 문화적 正體性을 확립하고 세계시민으로서의 미국인이 가져야 할 세계관의 정립을 필요로 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다는 점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시기에 종합과학이면서도 기초학문으로서의 인류학이 거의 모든 대학에서 교양 필수 과목으로 채택이 되었으며 언어학, 과학기술 발달사, 제3세계 특히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에 관한 경제학적·인류학적·정치학적 접근이 점차 유행하기 시작하였음도 특기할 만하다.

이러한 일반적인 흐름과 동시에 하바드대학에서는 '80년대에 들어와서 새로운 차원에서의 교

양교육을 실험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즉 1979년에 제출된 하바드대학의 교양교육 개혁안은 종래의 교양과목과 병행하여 중핵 교과과정(core curriculum)을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것은 通論 위주의 종래의 교양과정의 인식을 탈피하고 교양교육을 '20세기 후반에 있어서 필요한 교육받은 사람의 像'에서 도출하고자 하는데, 이 '교육받은 사람의 상'이란 다섯 가지 요건을 구비함을 뜻한다. 즉 첫째, 명료하게 사고하며 효과적으로 표현할 줄 알아야 한다. 둘째, 특정한 분야에 있어서 깊은 지식을 가져야 한다. 셋째, 우주와 사회와 인간에 대한 폭 넓은 지식과 이해를 터득할 뿐만 아니라 그 지식을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넷째, 도덕과 윤리에 관한 충분한 인식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문제에 관하여 항상 사고하고 경험의 차원에서 실천해야 한다. 다섯째, 다른 문화권과 다른 시대에 대하여 무지한 나머지 세계와 사물을 보는 시각과 관점이 좁거나 경직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에서 첫째와 둘째 요건은 대학교육 전반을 통해서 실현되어야 할 것이며, 셋째, 넷째, 다섯째 요건들은 특히 교양교육이 담당하여야 할 것이라고 이 보고서는 강조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하바드대학에서는 1960년 이래 중핵 교과과정을 설치하여 실험적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영역 1. 문학과 예술 분야

희곡과 연극  
田園的 전통  
희곡과 소설  
중국의 회화  
시각예술 입문  
음악에 있어서 스타일의 개념  
현악 4중주의 발달사  
바이마르 문화  
르네상스 인간상

#### 영역 2. 역사연구 분야

개발과 저개발의 역사

국가간 불평등의 기원  
 중국의 전통과 변천  
 현대 정치의 이데올로기 배경  
 과학혁명과 사회변천

30년전정  
 유태인의 해방  
 다윈의 혁명

영역 3. 사회의 분석과 윤리의 규명

인간의 본성  
 범죄와 인간성  
 전쟁과 평화  
 문화와 인류의 발달  
 법과 질서  
 민주주의 이론  
 논리학과 추리  
 여성과 사회와 문화

영역 4. 과학

현대물리학의 개념과 발달  
 천문학적 관점  
 공간과 시간과 운동  
 생명의 신비  
 지구의 생명의 역사  
 생물의 진화  
 연금술에서 분자물리학으로

영역 5. 외국 문화

서아프리카의 미술과 신화  
 러시아 문명 입문  
 현대 중공의 사조  
 남미 인디안의 문명과 문화  
 현대 독일문학  
 극동의 소설  
 동양예술론

물론 이외에도 더 많은 과목들이 교양교육을 위하여 개설되어 있다. 다만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바는 이제 교양교육의 교과과목은 종래 개론이나 통론 위주의, 그리고 각 학문의 기본적인 성격과 내용을 이해하는 것을 벗어나서 오히려 여러 상호 관련되는 학문 영역에서 어느 정도의 지식을 전제로 하는 높은 지적 수준의 것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 금후의 추세라는 점이다.

4. 英國 대학에서의 교양교육  
 —옥스포드대학을 중심으로—

아마도 옥스포드대학을 중심으로 교양교육을 살펴보려 한다면 무엇보다도 과연 옥스포드대학에 교양교육이 실시되고 있는가 하는 질문부터 제기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옥스포드대학에는—일반적으로 영국의 대학들은—교양과목으로 분류되어 있는 학과목이나 강좌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들이 전공 이외의 특정 과목을 임의로 몇 가지 선택하여 이수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 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하버드대학이나 콜럼비아대학처럼 교양교육에 관한 특별한 위원회의 설치나 운영지침도 없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옥스포드대학에는 교양교육이 실시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양’과 ‘전공’의 구분이 전혀 없다는 사실은 관점에 따라 모든 것이 교양과목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는 말이 된다.

사실 이것은 영국에서의 대학의 의미, 특히 옥스포드대학의 성격을 파악하지 않고는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는 문제이다. 영국에서는 대학이란 이미 어느 정도 교양과 기초지식을 갖춘 사람이 고도의 전문적 학문을 연마하기 위하여 가는 곳이라는 생각이 일반적인 인식으로 되어 있다. 이때의 교양이란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예의와 규범 및 세계관과 가치관, 그리고 우리나라와 미국의 일반 대학에서 1학년 과정에서 실시하고 있는 도구적 과목 및 기초과정에 해당하는 과목 등의 이수를 뜻한다. 따라서 대학에는 <초급(고급)불어>, <교양영어>, <국사개론> 등과 같은 과목이 없다. 이미 대학에 입학할 때면 자기의 전공 학문에 필요한 외국어와 기초 훈련—수학이나 철학, 논리학 등—은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개인에 따라서 이러한 개론이나 기초과정 또는 학문 외의 기술적인 측면을 더 연마하려면 성인교육 기관인 ‘College of Further Education’이나 대학 및 연구소에서 개설하는 특별 프로그램에 참가한다.

참고로 말하자면, 옥스포드대학에서 불문학을 전공할 학생은 불어로 에세이를 쓰며 고전학을

전공하려는 학생은 라틴어나 그리스어로 에세이를 쓰고 단점에서 응답하도록 요구받는다. 수학과 학생의 입학시험 가운데에는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가 독을 마시고 죽었을 때 그 독배에는 조금의 독약이 남아 있었고, 그것이 증발하여 비속에 함유되어 다시 당신의 머리에 떨어진다고 가정할 때 그 확률에 대해 논하라”라는 문제도 있었다. 또는 “기계공학의 원리와 음악의 구조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말을 논하라”라는 것도 기계공학을 전공코자 하는 응시자에게 주어 진 에세이 제목이다. 이러한 것은 대학에 들어 올 때 이미 고도의 사고력, 폭 넓은 지식, 논리와 수사학 등에 관한 훈련을 필요로 함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며, 대학 입학에 필요한 국가고사인 A-level(Advanced level)의 상위권 점수 취득자는 미국 대학에 입학할 경우 2학년에 진입이 된다고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영국에서는 대학은 전공 분야에서의 연구와 훈련을 하는 곳이 된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전공 분야로 명시된 교과과목이 또한 없다는 사실이다. 옥스포드대학에는 실로 다양하고 수많은 강좌가 특정 분야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연합하여 소위 학계간 협력을 통하여 세미나와 특별강좌의 형식으로 설치되어 있고, 학생들은 임의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영국의 대학은 미국과 한국처럼 학점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전공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반드시 들어야 하는 과목이 선정되어 있지 않다. 물론 전공과정에는 특정한 과목들이 있어서 학생들이 참가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권장사항이지 졸업에 필요한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곧 개설된 강좌들은 학생의 학위 취득을 위한 이수과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다. 학생은 다만 지도교수의 지시에 따라 지도교수와 단독으로 하는 개인교수(tutorial)를 통해서 소정의 과정에 필요한 학습과 연구를 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강좌의 많은 부분은 그 명칭이나 내용에 있어서 앞서 하버드대학의 교양교육 개혁안에 포함되어 있는 중핵 교과과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면 특히 문학과 역사 분

야에서 특별한 명칭을 획득한 교수(예를 들어 역사 부문에서 Regius Professor—이는 국왕에 의해 선정·임명되는 종신칭호이다—나 영문학에 있어서 계관시인—국왕이 수여—및 특별 교수—이는 옥스포드대학 총회에서 투표로 선정한다—등) 및 기타 원로교수와 사계의 권위자들에 의한 특별강좌는 전문영역에 대한 특수한 내용보다는 한 주제에 관련된 가능한 폭 넓은 지식과 안목을 조합하여 제시해 주는 높은 수준의 교양강좌로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수 및 일반 지식인들도 즐겨 참여하는 강좌이다. 대개 이러한 강좌는 한 학기나 일년을 계속하는 것이며 특정 날짜에 특정 강의실을 빌려서 한번만 하고 마는 일회성의 강좌가 아니다.

그리고 철학·인류학·역사학·사회학 등이 상호 연관되어 공동의 주제를 다각도로 다루는 세미나들이 다양하게 개설되어 있고 학생과 교수들이 전공과 관계없이 관심에 따라 자유롭게 참가한다(예를 들어 개인과 사회, 불명등과 사회통합, 문화의 다양성과 문화 해석의 합리성 등).

옥스포드대학에서는 강좌와 세미나가 여러 다른 분야의 전공자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각 학과간에 상호 협력하여 공동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도 특징이다. 예를 들자면 옥스포드대학에는 P.P.E. 과정이 있는데 이것은 정치학(politics), 철학(philosophy) 및 경제학(economics)의 약자로서 이 세 학문 분야는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상호 밀접한 관계성 속에서 탐구되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만들어진 옥스포드대학 특유의 과정이다. 곧 학부에서 정치학을 공부하려는 학생은 정치철학과 정치경제학을, 그리고 경제학을 공부하려는 학생은 경제학 외에 철학과 정치학을 공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세 분야가 공동으로 주제를 선정하여 강좌가 개설된다. 물론 하나의 강좌가 아니라 한 학기에 적어도 20여 개의 각기 다른 주제를 가진 강좌가 설치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것으로는 P.P.P(politics, philosophy, psychology) 과정이 있고, 인간과학(human science)과정은 인류학, 지리학, 심리학, 생리학, 체질인류학, 생리학 등 관련 분야의 교수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사회연구(social

studies) 분야에서는 정치학, 경제학, 법학, 인문학, 사회학 등의 관련 학문 분야가 참여한다.

앞서 말했듯이 옥스포드대학에서는 교양과 전공의 구분이 없지만 그 내용과 성격상 교양강좌로서의 의미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들을 몇 가지만 예로서 분류해 볼 수 있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것이다. 그 강좌가 전공하는 학생에게는 전공과목의 강좌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에게는 고급 교양강좌가 되기 때문이다.

#### 1. 사회 분야

正義의 배분 문제  
국가의 평등의 문제  
20세기의 마르크시즘  
인종주의와 정치  
개인주의의 역사적 발전  
전쟁과 평화  
'돈'에 대하여

#### 2. 문학과 예술

르네상스 예술에서의 인간상  
중국 고전에 나타나는 인간관계의 특성  
현대미학의 제 문제  
문예비평사  
희극과 비극, 그 사회적 의미  
문학과 이데올로기  
언어와 예술의 관계

#### 3. 지역연구

제3세계의 발전과 저발전  
아프리카 사회와 문화  
남미의 사회와 문화  
아시아의 사회와 문화  
동남 아시아의 사회와 문화  
중동의 사회와 문화  
유럽의 사회와 문화  
러시아의 사회와 문화  
동구의 사회와 문화  
미국의 사회와 문화

#### 4. 역사연구

러시아·프랑스·미국·아시아의 최근사  
식민통치와 문화의 갈등  
유럽 공동시장의 성립 배경  
종교의 발흥과 마술의 쇠퇴

제3세계의 숨은 역사  
기술혁명과 사회변동  
반란의 의미  
권력의 노예  
5. 기타 최근의 관심 분야  
여성과 사회  
과학과 종교 및 정치  
呪術과 정치  
신비주의와 왕권  
동물행태학 입문  
사회생물학  
사회과학에서의 문화 개념  
인간의 공격성과 타협성  
과학의 윤리성

이상의 것은 몇 가지 간단하게 예로서 뽑아 본 것일 뿐이며 실로 다양한 주제의 강의, 특별강좌, 세미나 등이 열리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교양교육이 기초과정이나 도구적 과목이 아니라 아주 고도의 지적 수준에서 다양한 학문적 연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또한 그 대상도 학부의 저학년에 국한되거나 치중되는 것이 아니라 고학년과 대학원생 그리고 심지어 교수까지도 참여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역사에 대한 성찰, 타사회의 문화에 관한 소위 지역연구의 성행, 인간의 정치, 경제, 상징적 행위에 관한 특성에 관련된 강좌가 두드러진다는 점이 옥스포드대학 교육의 분위기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 5. 外國 大學에서의 교양교육의 특징

이상에서 살펴본 바 외국 대학에서의 교양교육의 성격은 다음과 같이 특징지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내용에 있어서 보다 현실적인 문제를 다루되 그것의 원천을 밝히는 데 주력한다. 고대철학과 고전문학에만 치중하여 그것들에 대한 지식의 전수에 주력하던 종래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점차 인류학·사회학 분야의 위치가 중요시되고 있다. 이는 인간이 처해 있는 현재의 세계와 그 진행 방향에 대한 폭 넓은 안목과 깊은

이해가 요구되고 있음에 부응한 추세라고 본다. 교양교육이란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의 세계관을 정확하고 풍요롭게 형성하고 인식하는 능력을 제 공해 주는 교육이 되는 것이다.

둘째로 이러한 교양교육은 어느 특정 분야의 전문가에 의한 것보다는 점차 공통된 주제를 향한 다각적 안목과 상호 연관체제를 통하여 진행된다. 즉 학문간의 협력 및 공동개설이다. 이는 정치와 사회, 종교와 문학 등의 결합일 수도 있으며 같은 분야 안에서 다른 입장을 가진 전문가들의 공동 참여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세째로 현대 사회가 더욱 전문화와 세분화의 추세로 나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학에서는 교양교육이 중요시되며 그것이 갖는 전공교육과의 격차는 좁혀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물론 더욱 전문화된 영역과 수준에서의 전공을 대학원 과정에서 하게 되는 소위 대학원중심제 교육으로 바뀌어 가는 경향과도 관계가 있지만, 문제는 교양교육이란 낮은 수준의 박학다식을 뜻하거나 기초과정의 도구적 지식의 습득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점차로 우리의 현실적 문제를 높은 차원에서 폭 넓게 취급하는 안목을 기른다는 의미이다.

네째로 이러한 고급 수준에서의 교양교육은 전공교육의 보충 역할을 하며 새로운 사상과 학문의 경향을 보다 종합적으로 도입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언어학과 인류학에서 비롯된 현대의 구조주의 사상과, 인류학과 생태학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자원 개발과 환경 문제에 대한 심각성의 인식은 이러한 교양교육을 통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성취된다.

다섯째로 오늘날 교양교육의 진행방향은 주로 타사회와 문화에 대한 폭 넓고 공정한 이해를 추구하는 것, 사회의 다양성 속에 깃들여져 있는 인간의 보편성을 규명하는 작업, 그리고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는 안목의 형성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결국 인류의 다양성과 사회적 환경의 차이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는 작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6. 맺음말

교양교육의 운영은 본질적으로 대학의 일반적

인 운영의 맥락 속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옥스포드대학이나 하버드대학 등 서구 대학에서 전공과목뿐만 아니라 교양과목이 다양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것은 시설과 제도와 시간의 측면에서 적극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대학의 모든 시설이 거의 24시간 가동이 되어서 교수와 학생이 언제든지 그 속에서 살 수 있는 하나의 소우주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사실 옥스포드대학에서는 아주 흥미 있는 세미나와 기획강좌들은 대부분 저녁식사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많다. 작은 강당이나 안온한 구내식당, 세미나 룸에서 두어 시간 이야기한 후 밤늦도록 건물 밖 거리의 술집에서 다시 연결되는 이야기 속에서 대학은 그 살아 있는 모습을 발휘하고 교수와 학생은 지식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사고방식과 시각과 태도를 훈련하고 세련시키며 지식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살아 있는 교양교육 즉 한갓 지식의 전수에만 그치는 강의가 아닌, 자신의 삶을 폭 넓게 바라보고 사고할 능력을 길러 주고 세계관을 갖게 해주는 교육을 교양교육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규격화되고 매마른 강의실을 벗어나야 하고 대학은 오후 5시가 되면 유행도시로 변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

둘째로 원활하고 이상적인 교양교육을 위해서는 오랜 학문적 업적과 인격적인 수련을 쌓은 원로학자가 확보되어야 한다. 교양교육이 도구적 학과목의 이수나 기초과정의 과목을 뜻할 때는 해당 분야에 새로운 이론과 훈련을 쌓은 소장학자들이 담당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할지 모르나, 학문간의 구획을 가로질러서 총체적 안목으로 지식을 종합하는 것이 교양교육의 요체라고 한다면 폭 넓은 시각과 다양한 학문적 차이를 소화할 원로교수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의미에서 진정한 교양교육의 실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충분한 숫자의 교수가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옥스포드대학에서 철학을 담당하는 전임교수의 숫자는 113명, 역사 교수가 72명, 문학 교수가 150명이나 되며 이 중에는 가르치지 않고 연구만 하는 교수가 허다한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더우기 교수 한 사람은 한 학

기에 한 과목만 담당하는 것도 특징이다.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원로교수는 정년제에 의하여 퇴임하던 그것으로 평생을 몸담아 왔던 학교를 떠나게 되어 있다. 연구실은 물론, 도서관까지도 '외부인'이 되어서 이용할 수가 없는 것이다. 보수를 받지 않아도 좋으니 연구를 계속하고 한 과목이라도 가르치고 싶은 대로 마음껏 가르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으면 하는 퇴임 원로교수의 말씀은 대학이 학문의 전당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심각히 음미해야 할 것이다.

서울대학교의 교양교육 실험 보고서는 당초에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를 올리지 못한 원인 분석에서 학생의 지적 수준과 수강 능력에 대한 훈련이 미흡한 점과 많은 양의 과제물을 학생과 교수 모두 소화할 수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점은 한 사람의 교수가 3~4개의 강좌를 하면서 동시에 특별 교양강좌를 담당함으로써 충실을 기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다.

많은 대학들이 적은 수의 전임교수들에게 주당 20시간씩의 강의를 하도록 요구하는 예가 많다. 한 시간의 강의를 위하여 수시간의 준비와 연구가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충분한 숫자의 교수 확보는 교양교육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가장 근본적이고 절실한 문제인 것이다.

세째로, 교양교육의 이상적인 실천을 위해서는 진정한 의미의 학제간 협력체제가 확립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처럼 학문과 학과간의 장벽이 높고 완고한 학문풍토 위에서는 한 주제에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하는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는

다. 교양교육에 흔히 채택되는 서적들을 보면, 예를 들어 외국 사회철학자의 저서에는 인류학·역사학·과학기술·언어학 등에 관한 지식이 해박하게 펼쳐져 있고, 인류학의 저서에는 법학·경제학·정치학자의 논저가 흔하게 인용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찾기란 쉽지 않다. 사회철학과 역사학 또는 정치학과 경제학 사이에는 상호 연관성이나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실제로 실천되는 일은 거의 없다. 그것은 오늘날까지 우리의 학문적 풍토와 수준이 충분한 훈련을 해오지 못한 데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학문을 소비재 상품의 시장처럼 생각하는 아집과 이기주의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본다. 교육과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자폐증을 스스로 극복할 때 비로소 폭넓은 안목과 다양한 지식의 종합이 이루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양교육의 이상적인 실천을 위해서는 제도나 운영상의 기술적 측면만 고려해서는 안 된다. 대학교육에 대한 원론적인 문제의 해결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우선 대학교육이 고등학교 교육과 연결되어야 한다. 고등학교의 교육 수준이 낮고, 기본적인 지식의 습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대학에서의 교양교육이 영어문법이나 국어작문을 가르치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또한 교수로 하여금 충분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시설과 시간과 재정적인 측면에서의 지원책이 확보되어야 한다. 군대막사와 연병장 같은 캠퍼스에서 규격화된 지식으로 사회의 소모품을 만드는 공장의 모습을 과감히 탈피하지 못하는 한 이 글은 칩터리에서 밝힌 바대로 또 한번 꿈 같은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이 될 것이다. \*